

2021년 2학기 고급거시경제학연구 -박예나

설 문 내 용	결과	전체
1.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필수과목이기에	15(83%)	18(100%)
(2)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	1(6%)	
(3)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6%)	
(4)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0%)	
(5)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	0(0%)	
(6) 명강의로 소문나서	0(0%)	
(7) 재수강	1(6%)	
2.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1) 1/4 미만	0(0%)	15(100%)
(2) 1/4 이상 2/4 미만	0(0%)	
(3) 2/4 이상 3/4 미만	0(0%)	
(4) 3/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	0(0%)	
(5) 거의 100%(거의 매번 출석)	15(83%)	
3.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 ((1)-(3)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 경우)		
(1)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0(0%)	15(100%)
(2) 시험 때만 하였다.	0(0%)	
(3)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	2(11%)	
(4)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	2(11%)	
(5)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	11(61%)	
4.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5(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5(28%)	
(5) 매우 그러했다.	10(56%)	
5. 사용된 교재,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5(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9(50%)	
(5) 매우 그러했다.	6(33%)	
6.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6%)	15(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1(6%)	
(4) 대체로 그러했다.	8(44%)	
(5) 매우 그러했다.	5(28%)	
7.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5(100%)
(2) 그렇지 않았다.	1(6%)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7(39%)	
	(5) 매우 그러했다.	7(39%)	
8.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질문, 면담, 게시판, e-mail)를 제공받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5(100%)
	(2) 그렇지 않았다.	1(6%)	
	(3) 그저 그러했다.	1(6%)	
	(4) 대체로 그러했다.	7(39%)	
	(5) 매우 그러했다.	6(33%)	
9.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		
	(1) 너무 적었다	0(0%)	15(100%)
	(2) 적은 편이었다.	0(0%)	
	(3) 적절했다.	1(6%)	
	(4) 많지만 할만했다.	6(33%)	
	(5) 너무 많았다.	8(44%)	
10.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너무 쉬웠다.	0(0%)	15(100%)
	(2) 쉬운 편이었다.	0(0%)	
	(3) 적절했다.	1(6%)	
	(4) 어렵지만 할만했다.	8(44%)	
	(5) 너무 어려웠다.	6(33%)	
11.	교수님의 강의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매우 느슨했다.	0(0%)	15(100%)
	(2) 느슨한 편이었다.	0(0%)	
	(3) 적절했다.	3(17%)	
	(4) 딱딱하지만 할만했다.	6(33%)	
	(5) 너무 딱딱했다.	6(33%)	
12.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5(100%)
	(2) 그렇지 않았다.	2(11%)	
	(3) 잘 모르겠다.	4(22%)	
	(4) 대체로 그러했다.	5(28%)	
	(5) 매우 그러했다.	4(22%)	
13.	실습 또는 연습시간(TA session)은 유용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7%)	14(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3(21%)	
	(4) 대체로 그러했다.	6(43%)	
	(5) 매우 그러했다.	4(29%)	
14.	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4(100%)
	(2) 그렇지 않았다.	1(7%)	
	(3) 잘 모르겠다.	2(14%)	
	(4) 대체로 그러했다.	4(29%)	
	(5) 매우 그러했다.	7(50%)	

전체

기타 건의사항

- 1. 전반부(장용성 교수님)

과제가 복습과 시험준비에 도움을 주었으나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의 경우 교수님께서 고급거시에서 다루지는 큰 토픽들을 짚 훑어주셔서 좋았습니다.

2. 후반부(박예나 교수님)

후반부 강의 내용은 조금 지나치게 어려웠습니다. 경제학부 대학원생 모두가 필수적으로 수강하지 않는 수학 과목에 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내용이 많아(특히 학기말 부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화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학생 백그라운드를 모두 알 수 없고 모두의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배경지식은 이미 모두 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겠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제의 경우에도 난이도가 높아 추가적인 TA session 없이는 모두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고, 분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준비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